

# 부부폭력과 결혼불안정성의 관계

A Study on Relationship of Marital Violence and Marital Unstability

부산대학교 아동·주거학과  
강사 김수연  
부산대학교 아동·주거학과  
교수 김득성

Dept. of Child & Housing, Pusan National Univ.  
*Lecturer : Kim, Soo-yun*  
Dept. of Child & Housing, Pusan National Univ.  
*Professor : Kim, Deuk-sung*

## 〈목 차〉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of marital violence and marital instability. A total of 192 marital couples in Pusan completed a structure questionnaire.

The major finding were as follows :

1. Husbands and wives reciprocally inflicted psychological aggression and physical violence.
2. Violent couples who were high level of marital instability had worse family system function than violent couples who were low level of marital instability. Violent husbands who were high level of marital instability were disengaged and chaos family system.
3. Husbands inflicted violence toward their wives when husbands had the contempt of communication style, and their family function were disengaged level. Wives inflicted violence toward their husbands when wives had the contempt of communication style. Couples who had high level of marital instability were more likely to violent and were disengaged level on Circumplex Model.

◆ key word: 가족기능,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 부부폭력, 결혼불안정성

## I. 문제의 제기

가족이란 인간에게 애정과 이해가 가득한 보금자리일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갈등과 폭력이 난무하는 지옥일 수도 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나 결혼생활을 할 때 갈등은 불가피한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갈등의 양이 아니라 갈등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갈등을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폭력이다.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 및 성적 폭력을 총칭하는 부부폭력은 지금까지는 부부싸움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다루어져 왔고, 개인에게는 감추고 싶어하는 수치스러운 것으로 은폐되어 왔다. 부부폭력은 그 원인과 형태가 어려하든 많은 피해를 놓는다. 신체적인 손상은 물론이고 낮은 자존감, 무가치함, 정신신체 질환과 같은 정서적 장애, 나아가 존속살인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신체적·심리적 고통은 개인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결혼관계와 가족관계의 붕괴 또는 가족해체의 위기를 경험하는 심각한 상태로 발전하기도 한다.

한편 부부폭력이 결혼관계를 해체하느냐에 관해서는 연구마다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부부폭력은 결혼불안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보고(김정옥·전형미·이현혜, 1992; Gelles, 1976)도 있는 반면 폭력이 일어난다고 해서 결혼관계가 종식되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특히 폭력을 당하는 아내의 경우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요인이 결혼불안정성 사이에서 매개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즉 이들 요인에 따라 부부폭력이 이혼을 야기 시킬 수도 혹은 야기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내가 심리적으로는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질수록, 학습된 무기력 및 어린 시절 폭력 경험이 많을수록, 경제적으로는 경제적 의존이 심할수록, 이혼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아내는 폭력의 심각성이나 빈도와 상관없이 결

혼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Walker, 1979; Truninger, 1971; Bowker, 1993; Pagelow, 1981; Strube & Barbour, 1983). 이를 연구는 주로 아내 개인 차원의 심리학적인 접근을 하거나 가부장적 사회구조에서 여성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열등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여권론적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여권론적 입장은 부부폭력의 대안으로 거시적인 정책적 수준만을 제시하고 있어 현실에 쉽게 적용할 수 없다는 점과 피해자로서 여성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부부체계나 가족체계를 고려하지 않아 심리적·관계적 차원에서의 문제해결이 곤란하다는 제한점이 있다(최규련, 1996).

이와는 달리 체계적 관점에서는 부부폭력을 상황적이고 역기능적인 부부체계의 문제로 본다. 부부폭력은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격이나 유전적·심리적 특성과 같이 고립된 행동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부 상호간의 의사거래 과정으로 본다. 즉 부부 폭력은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 양방적인 행위이며, 부부체계 혹은 가족체계의 산물이라고 본다(Infante, Chandler & Rudd, 1989; 김득성·김정옥·송정아, 1999). 이러한 체계적 접근은 부부폭력의 예방과 치료가 거시적인 관점보다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체계적 관점으로 부부폭력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으며, 더욱이 폭력부부 가운데에서도 결혼해체를 고려하는 부부와 고려하지 않는 부부의 가족체계 기능이 어떻게 다른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폭력적인 부부가 이혼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지만 폭력을 당하면서도 결혼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체계이론을 바탕으로 한 가족기능의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폭력을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부부폭력을 부부체계의 문제로서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이루어내

는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부를 쌍으로 표집하여, 부부 양방의 폭력에 대한 차이나 가해와 피해의 관련성 즉 한 쪽 배우자의 폭력과 다른 쪽 배우자의 폭력의 관련을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체계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 Olson의 순환모델을 적용하여 가족체계 기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폭력의 전반적인 경향을 남편과 아내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둘째 결혼불안정성이 높은 폭력부부와 낮은 폭력부부간의 가족체계 기능을 알아보며, 셋째 가족체계의 어떤 역기능 요인이 부부폭력과 결혼불안정성을 유발시키는지를 탐색적으로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부폭력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1-1. 남편과 아내의 폭력 가해와 피해의 정도는 어떠한가?

1-2. 남편과 아내의 폭력 가해와 피해는 차이가 있는가?

1-3.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은 관련이 있는가?

연구문제 2. 결혼불안정성이 높은 폭력부부와 낮은 폭력부부의 가족기능(옹집성, 적응성 및 의사소통)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부부폭력과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3-1. 부부폭력에 미치는 관련변인들(옹집성, 적응성 및 의사소통)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3-2.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관련변인들(부부폭력, 옹집성, 적응성 및 의사소통)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가족기능과 부부폭력

가족기능과 부부폭력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옹집성과 적응성을 직선 개념으로 보고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과의 관계를

본 김정옥 외(1992)의 연구에서는 옹집성과 적응성이 낮을수록, 즉 유리되고 경직될수록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였다. 한편 옹집성과 적응성의 역기능 수준을 모두 포함하여 폭선 개념으로 다룬 연구(김수연·김득성, 1999)에서는 옹집성의 경우 폭력부부는 비폭력 부부에 비해 유리가 높고 연결이 낮았으며, 적응성의 경우 혼돈은 높고 융통은 낮다고 하였다. 즉 폭력부부의 가족기능은 비폭력부부에 비해 유리되고 혼돈된 양상을 보였다.

의사소통에서도 폭력부부는 비폭력부부에 비해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였다(김정옥 외, 1992; 김수연·김득성, 1999). 폭력부부는 비폭력부부에 비해 비난, 경멸, 방어를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였는데, 특히 폭력부부 가운데서도 심리적 공격 부부보다 신체적 폭력을 행하는 부부의 의사소통이 더욱 비효율적이었다. 상대를 비난하고 경멸하는 언어를 자주 사용하였으며, 상대방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방어하는 자세를 취하였다(김수연·김득성, 1999).

### 2. 부부폭력과 결혼불안정성

부부폭력이 결혼의 불안정성을 결정하는가는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하나는 부부폭력은 결혼불안정성을 높이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졌으며, 폭력이 야기될수록 결혼관계는 파탄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김정옥·전형미·이현혜, 1992; Gelles, 1976).

반면 부부폭력이 결혼불안정성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변인들이 매개하여 결혼불안정성을 결정한다는 입장이 있는데, 관련변인은 접근방법에 따라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으로 설명하는데,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낮은 자아개념으로 인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없다는 감정을 갖는다는 것이다(Walker, 1979). 사회적·경제적 관점에서는 과거 어린 시절 매맞은 경험과 같은 매맞는 여성들의 인성이 문제가 아니라 보다 거시적인 사회구조의 이유로 인해 학대관계에 매여있다고 하였다.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 폭력을 다룬 경우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 의존도가 클수록, 부양해야 할 자녀가 많을수록 학대

를 당하는 관계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Pegelow, 1981; Strube & Barbour, 1983). 즉 아내가 가진 자원이 폭력적인 관계를 종식시킬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부부폭력과 결혼불안정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의외로 적었다는 것은 폭력을 행하는 부부의 경우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결혼의 질이 떨어지고 결혼관계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부부의 가족기능과 그 가족기능이 결혼불안정성으로 이어지는 관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 시내 중학교 학생의 부모를 표집 대상으로 하였다. 1999년 6월 30일에서 7월 20일까지 3개 중학교에서 6개 학급을 대상으로 240명(480

부)의 부모를 조사하였다. 부모들이 서로 의논하지 말고 응답하도록 부탁하였으며, 학생들을 통해서 회수하게 되므로 부모가 응답한 질문지를 동봉한 봉투에 각자 넣어 봉하고 이를 다시 큰 봉투에 넣어 봉해서 학생 편에 보내주도록 요청하였다. 응답이 누락된 자료와 한 쌍이 아닌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92쌍(384명)의 부부였다.

####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가계 수입은 50만원 미만이 7%, 5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이 12%, 100~150만원 미만이 20%, 150~200만원 미만이 25%, 200~250만원 미만이 8%, 250만원~300만원이 11%, 300~400만원이 6%, 400만원 이상이 3%이었다. 남편의 직업은 사무직이 24%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생산기술직과 소규모 자영업이 각각 21%, 일반 전문기술직 13% 순이었다. 아내는 전업 주부가 68%이었고 취업을 한 경우 임시고용·노무직 12%, 소규모 자영업 9%, 판매 서비스직 6% 순이었다. 학력은 남편의 경우 초등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 192쌍

변인	구 분	남편 사례수(백분율)	아내 사례수(백분율)	변인	구 분	사례수 (백분율)
연령	30~40세 미만	28(15)	92(49)	수입	50만원 미만	13 (7)
	40~50세 미만	150(80)	97(51)		50~100만원 미만	22(12)
	50~60세 이상	9 (5)			100~150만원 미만	38(20)
직업	무직, 주부	10 (6)	124(68)		150~200만원 미만	47(25)
	임시고용, 노무직	12 (7)	21(12)		200~250만원 미만	15 (8)
	판매/서비스직	10 (6)	10 (6)		250~300만원 미만	21(11)
	숙련, 기능/생산직	38(21)	8 (4)		300~400만원 미만	11 (6)
	소규모 자영업	37(21)	16 (9)		400 이상	13 (7)
	일반 사무직	42(24)	0 (0)	결혼 상태	초혼	183(98)
	일반 전문기술직	23(13)	3 (2)		재혼	4 (2)
	고위 전문직	7 (4)	0 (0)	가족 형태	핵가족	
교육 수준	초등졸 이하	6 (3)	5 (3)		확대가족	
	중졸	20(11)	35(19)		계부모가족	
	고졸	88(48)	117(63)			155(82)
	대졸	60(32)	25(14)			30(16)
	대학원졸	11 (6)	3 (2)			2 (1)

졸이 3%, 중졸이 11%, 고졸이 48%, 대졸이 32%, 대학원졸이 6%이었다. 아내의 경우 초등졸이 3%, 중졸이 19%, 고졸이 63%, 대졸이 14%, 대학원졸이 2%이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중간 계층이 표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평균 연령은 남편이 44세, 아내가 40세이었고 평균 결혼년수는 17년이었다. 결혼 상태는 초혼의 경우가 98%이었다.

### 3. 측정 도구

#### 1) 부부폭력 척도

부부폭력 척도는 Straus(1996)의 Conflict Tactics Scale(CTS)Ⅱ를 김예정·김득성(1999)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CTS Ⅱ 척도는 협상, 심리적 공격, 신체적 폭력, 성적 학대 및 상해의 5개 하위 척도로 이루어졌고, 문항들은 자신이 배우자에게 가한 폭력(가해)과 배우자가 자신에게 가한 폭력(피해)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5개 하위 척도 가운데 심리적 공격 가해 및 피해 척도 각각 8문항과 신체적 폭력 가해 및 피해 척도 각각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범주는 전혀 없음(0), 1년 전에 발생(1), 1년에 1번(2), 1년에 2번(3), 1년에 3-5번(4), 1년에 6-10번(5), 1년에 11-20번(6), 1년에 20번 이상(7)의 8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에 폭력이 많이 발생함을 나타낸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남편의 경우 심리적 공격  $\alpha = .85$ , 신체적 폭력  $\alpha = .89$ 이었고, 아내의 경우 심리적 공격  $\alpha = .77$ , 신체적 폭력  $\alpha = .87$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폭력 척도를 사용하여 비폭력 부부와 폭력부부(심리적 공격 부부와 신체적 폭력부부) 집단을 구분하였다. 심리적 공격이 평균 미만으로 발생하고 신체적 폭력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부부를 비폭력부부라고 하였다. 심리적 공격의 경우 평균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심리적 공격이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에 쉽게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심리적 공격이 평균 이상 발생하였으나 신체적 폭력은 없는 부부를 심리적 공격부부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공격이 평균 이상 발생하고 신체적 공격이 함께 행해진 부부를 신체적

폭력부부라고 하였다.

#### 2)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 척도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척도는 Olson의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 평가 척도(FACES) 시리즈를 재구성한 김수연·김득성(199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응집성 척도는 유리 5문항, 연결 11문항, 속박 8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융통성 척도는 경직 8문항, 융통 7문항, 혼돈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유리가  $\alpha = .81$ , 연결이  $\alpha = .78$ , 속박은  $\alpha = .68$ 이었고, 적응성에서 경직은  $\alpha = .68$ , 융통은  $\alpha = .82$ , 혼돈은  $\alpha = .76$ 이었다. 문항의 응답 방식은 5점 리커트식이다.

#### 3) 의사소통 척도

부부 의사소통 척도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으로 Gottman 척도(1994)를 참고로 하여 비난 9문항, 경멸 12문항, 방어 11문항, 냉담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비난, 경멸, 방어, 냉담은 누적적인 개념으로 뒤로 갈수록 더욱 심각한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척도는 5점 리커트식으로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비난이  $\alpha = .75$ , 경멸이  $\alpha = .90$ , 방어가  $\alpha = .80$ , 냉담이  $\alpha = .78$ 이었다.

## IV. 결과 및 해석

### 1. 부부폭력의 전반적 경향

부부폭력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첫째, 남편과 아내의 폭력 가해와 피해의 정도를 알아본 후 남편과 아내의 폭력 가해와 피해간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둘째, 부부간에 발생한 폭력에 대해 남편과 아내가 비슷하게 지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상대에 비해 자신이 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가해와 피해에 대한 지각 차이를 구하였다. 셋째,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표 2〉에서 남편의 경우 지난 1년간 한 번 이상 아내에게 심리적 공격을 한 비율은 전체의 67%이었

〈표 2〉 부부폭력의 전반적인 경향

폭력 유형		남편(N=189)		아내(N=188)		t값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가해	심리적 공격	123 (67%)	6.0 (8.9)	118(36%)	4.8(7.7)	N.S
	신체적 폭력	69 (39%)	4.4(10.7)	55(31%)	3.1(6.4)	N.S
피해	심리적 공격	107 (59%)	4.4 (7.7)	116(64%)	5.7(8.7)	N.S
	신체적 폭력	55 (29%)	2.5 (8.7)	70(37%)	3.6(8.6)	N.S

〈표 3〉 부부의 폭력에 대한 지각 차이

폭력 유형	남편 가해 - 아내 피해		아내 가해 - 남편 피해		t값
	남편 가해	아내 피해	아내 가해	남편 피해	
심리적 공격	6.0(8.9)	5.7(8.7)	4.8(7.8)	4.4(7.7)	N.S
신체적 폭력	4.4(10.7)	3.7(8.6)	2.1(6.4)	2.5(8.8)	N.S

〈표 4〉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간의 상관계수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간의 상관계수	남편	아내
	.89*	.75*

\* P&lt;.001

고, 신체적 폭력은 39%이었다. 아내의 경우 지난 1년 간 한 번 이상 남편에게 심리적 공격을 행사한 비율은 전체의 36%이었고, 신체적 폭력의 경우 31%의 아내가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심리적 공격은 가해와 피해에서 평균 4.4에서 6.0의 범위에 있었는데, 이것은 응답범주에서 '일년에 3-5번'과 '일년에 11-20번'에 해당하는 것이다. 신체적 폭력은 가해와 피해의 경우 평균 2.1에서 4.4의 범위에 있어 응답범주 중 '일년에 1번'과 '일년에 3-5번'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김득성 외(1999)의 연구에 의해 다소 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가 행하는 부부폭력의 양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가해의 경우 심리적 공

격과 신체적 폭력에서 남편과 아내가 행하는 폭력의 양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남편과 아내가 상대방에게 가하는 폭력의 양은 비슷하였다. 폭력은 일방적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부부가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남편과 아내 모두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였다. 또한 피해의 경우 남편과 아내가 당하는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도 부부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에서 남편이 아내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과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의 평균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부부폭력은 부부가 함께 만들어낸 산물이며,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이루어내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부부폭력에서 자신이 상대방에게 가하는 폭력과 상대 배우자가 당했다고 지각한 폭력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표 3〉을 보면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각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때리는 사람이 실제보다 적게 폭력을 행했다고 하지 않았고 또한 맞은 사람은 실제 맞은 것보다 더 많이 맞았다고 보고하지 않았다. 즉 부부가 발생한 폭력에 대해 가감 없이 응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에서 볼 때 부부폭력에서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남편의 경우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간에는  $r=.89$ 의 상관이 있었고, 아내의 경우  $r=.75$ 의 상관이 있었다. 즉 남편과 아내 모두 심리적 공격이 많은 부부는 신체적 폭력도 많이 행사하게 되어, 심리적 공격의 증가 할수록 신체적 폭력이 자주 발생함을 알 수 있다.

## 2. 결혼불안정성이 높은 폭력부부와 낮은 폭력부부의 가족기능

부부간에 폭력이 발생한 경우라도 반드시 결혼관계가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 폭력부부 가운데서 결혼관계 해체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부부와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의 가족기능이 다른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한 결과가 <표 5>에 나타나 있다. 이후의 분석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을 행한 경우만(가해) 분석하였다.

폭력을 행하는 남편의 경우 결혼불안정성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응집성중 유리와 연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폭력을 행사하는 결혼불안정성이 높은 남편은 결혼불안정성이 낮은 남편에 비해 가족이 더욱 유리되어 있다고 지각하였다. 김수연(1998)의 연구에서 일반가족의 응집성 수준이 유리가 10.2, 연결이 40.3, 속박이 20.5인 것과 비교하여 볼 때 결혼불안정성이 높은 폭력 남편의 가족기능이 매우 유리되어 있고 연결이 낮은 심각한 역기능을 나타냈다. 반면 폭력을 행하는 아내의 경우 결혼불안정성의 높고 낮음에 따라 응집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폭력을 행하는 아내는 결혼관계

지속여부에 대한 고려와 관계없이 자신의 가족이 역기능적이라고 지각하였다.

폭력을 행하는 남편의 경우 결혼불안정성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적응성 중 융통과 혼돈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폭력을 행사하는 결혼불안정성이 높은 남편은 결혼불안정성이 낮은 남편에 비해 가족규칙의 융통성이 결여되고 혼돈된 상태에 있다고 지각하였다. 김수연(1998)의 일반가족 융통 수준(경직: 18.6, 융통: 25.8, 혼돈: 15.0)과 비교해 볼 때 특히 결혼불안정성이 높은 폭력 남편은 이러한 특성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반면 폭력을 행하는 아내의 경우 결혼불안정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적응성 중 융통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을 행하는 남편의 경우 결혼불안정성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비난, 경멸, 방어와 같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였다. 즉 결혼불안정성이 높은 남편은 그렇지 않은 남편에 비해 아내에게 어떤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불평보다는 상대의 성격이나 특성을 트집잡아 불평하는 비난, 상대를 모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경멸,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고 상황을 변명하며 비난에 대응하는 방어적인 의사소통을 훨씬 많이 하

<표 5> 결혼불안정성이 높은 폭력부부와 낮은 폭력부부의 가족기능

변인	폭력 남편				폭력 아내			
	결혼불안정성		t값	결혼불안정성		t값		
응집성	낮은 집단 (사례수/평균)	높은 집단 (사례수/평균)		낮은 집단 (사례수/평균)	높은 집단 (사례수/평균)			
	유리	40 10.7	33 14.0	-3.3**	22 10.0	36 11.6	N.S	
	연결	39 39.5	33 31.5	4.4**	22 39.3	35 36.9	N.S	
적응성	속박	40 21.3	33 20.9	N.S	22 22.9	36 22.9	N.S	
	경직	39 19.2	33 19.0	N.S	22 19.1	35 20.1	N.S	
	융통	40 24.8	32 22.0	2.2*	22 25.7	35 22.6	2.6*	
의사소통	혼돈	39 16.6	33 20.6	-2.6*	21 16.6	36 17.1	N.S	
	비난	40 27.4	33 30.1	-1.6*	22 26.8	36 29.4	N.S	
	경멸	40 29.9	33 38.2	-3.7**	21 31.8	36 36.4	-2.2*	
	방어	40 30.6	33 36.0	-3.2**	22 32.3	36 33.1	N.S	
	냉담	40 20.3	33 21.5	N.S	22 20.6	36 22.3	N.S	

\* p<.01 \*\* p<.0001

였다. 한편 폭력을 행하는 아내의 경우 결혼불안정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남편에게 경멸하는 의사소통을 유의하게 많이 하였다. 즉 이혼을 고려하는 아내일수록 남편을 경멸하는 의사소통을 많이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폭력을 행하더라도 이혼을 고려하는 집단과 이혼을 고려하지 않는 집단의 가족체계는 기능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즉 가족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결여되어 친밀감이 부족하였고, 가족체계를 다스리는 규칙이나 역할의 융통성이 부족하였으며, 상대의 가치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의사소통을 빈번하게 사용함을 알 수 있다.

### 3. 부부폭력과 결혼불안정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여기서는 먼저 부부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옹집성, 적응성 및 의사소통)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결혼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서 옹집성, 적응성 및 의사소통에 부부폭력을 포함해서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의 〈표 4〉에서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간에는 높은 상관( $r=.75 \sim .89$ )이 있어 다공선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을 합쳐 부부폭력으로 명명하였다. 〈표 6〉에서 보면 남편의 경우 부부폭력은 옹집성 중 유리( $\beta=.32$ ), 역기능적 의사

소통 중 경멸( $\beta=.25$ )에 영향을 받으며 이 두 변수는 남편 폭력의 총 변량 가운데 32%를 설명하였다. 즉 현재의 가족이 유리되어 있을수록, 아내와의 대화에서 경멸하는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남편은 아내에게 폭력을 많이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아내의 경우 경멸( $\beta=.40$ )은 아내의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변인으로 총 변량의 18%를 설명하였다. 즉 남편을 경멸하는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아내일수록 남편에게 가하는 폭력이 심하였다.

이상에서 남편의 경우 유리와 경멸, 아내의 경우 경멸이 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의사소통 변인 중 경멸은 남편과 아내의 경우 모두 부부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되는 변인이었다. 비난보다 강도가 높은 모욕적이며 경멸하는 의사소통은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한다. 또한 경멸하는 의사소통은 인간적인 수치심이나 비하심을 느끼게 하여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인 공격은 상대방에게 다시 이에 상응하는 심리적 공격으로 응수하게 하고 이에 따른 격앙된 감정적 상승은 신체적 폭력까지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남편의 결혼불안정성은 부부폭력( $\beta=.43$ ), 옹집성 중 유리( $\beta=.21$ ), 의사소통 중 방어( $\beta=.20$ ), 적응성 중 경직( $\beta=.18$ )에 영향을 받으며, 이들 변수는 남편의 결혼불안정성의 총 변량 44%를 설명하였다.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많이 행할수록,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가 유리되어 있을수록, 가족규칙이 경직되어 있을수록, 아내와의 대화에서 방어적인 의사소통을 많

〈표 6〉 부부폭력과 결혼불안정성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

종속변수	남편			아내				
	독립변수	B	beta	R <sup>2</sup>	독립변수	B	beta	R <sup>2</sup>
부부폭력	유리	.89	.32**	32%	경멸	.37	.40**	18%
	경멸	.21	.25**					
결혼불안정성	폭력	.02	.43**	44%	폭력 유리	.03 .04	.43** .13*	23%
	유리	.04	.21*					
	방어	.02	.20*					
	경직	.02	.18*					

이 할수록, 남편은 부부관계를 종결시키고자 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내의 결혼불안정성은 부부폭력 ( $\beta = .43$ ), 웅집성 중 유리 ( $\beta = .13$ )에 영향을 받으며 이들 두 변수는 남편의 결혼불안정성의 총 변량 23%를 설명하였다. 즉 남편에게 폭력을 많이 행할수록,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가 유리되어 있을수록, 아내는 이혼을 더욱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편과 아내의 경우 모두 부부폭력은 직접적으로 결혼관계를 파괴시키는 위협적인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가족이 유리되어 있어 친밀감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는 이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부폭력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결혼불안정성이 높은 폭력부부와 낮은 폭력부부는 가족체계 기능이 다른지 알아보며, 나아가 가족체계의 어떤 역기능 요인이 부부폭력과 결혼불안정성을 유발시키는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폭력의 전반적인 경향은 다음과 같다. 지난 1년간 한 번 이상 배우자에게 심리적 공격을 한 비율은 남편의 경우 67%이었고, 아내는 36%이었다. 신체적 폭력의 경우 남편은 39%이었고, 아내는 31%가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의 가해와 피해에서 남편과 아내가 상대방에게 가하는 폭력의 양과 상대방에게 당하는 폭력의 양은 비슷하였다. 또한 부부폭력에서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은 함께 일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부부폭력은 부부가 함께 만들어낸 체계의 산물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둘째, 결혼불안정성이 높은 폭력 남편이 결혼불안정성이 낮은 폭력 남편에 비해 가족 간의 정서적 친밀감이 결여되어 있고, 가족의 역할과 규칙체계가 혼란스러우며, 경멸과 방어하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였다. 반면 아내는 결혼불안정성 여부와 상관 없이 부부폭력이 발생되었을 경우 가족이 역기능적이라고 지각하였다.

셋째, 남편은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적을수록, 아내에게 경멸하는 태도로 대화할수록 부부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경멸하는 태도로 대화할수록 부부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넷째, 남편은 아내에게 폭력을 많이 행할수록,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적을수록, 가족규칙이 경직되어 있을수록, 아내에게 방어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결혼불안정성이 높았다. 아내는 남편에게 폭력을 많이 행할수록,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적을수록 결혼불안정성이 높았다.

이상에서 폭력을 행하는 남편과 아내의 경우 경멸하는 의사소통이 부부폭력을 발생시키고, 이러한 부부간의 폭력이 발생되면서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줄어들면 결혼불안정성이 증가하게 됨을 결론 내릴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부폭력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남편과 아내 모두 위기 상황에서 분노조절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 훈련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경멸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부분을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의사소통이 웅집성과 적응성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촉매 변인임을 감안할 때 의사소통에서의 변화는 가족기능 전체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시발요인이 된다 하겠다.

## 【참 고 문 헌】

- 김득성 · 김정옥 · 송정아(1999). 의사소통 유형과 부부폭력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1-16.
- 김수연(1998). 가족사정 척도 개발 및 타당도 검증.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수연 · 김득성(1997). 가족의 웅집 및 적응 평가 척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59-74.
- \_\_\_\_\_. (1999). 순환모델에 따른 비폭력부부와 폭력부부의 가족기능 비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 (2), 241-255.
- 김예정 · 김득성(1999). 대학생들의 데이팅 폭력에 영

- 향을 미치는 변인들(I) - 가해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10), 27-42.
- 김정옥·전형미·이현혜(1992). 자아존중감, 부부간 의사소통 및 결합력이 아내학대에 미치는 영향. *여성문제 연구* 20, 21-42.
- 최규련(1996). 한국에서의 부부간 폭력에 대한 대책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창간호, 103-130.
- Barnett, O. W., & LaViolette.. A. D.(1993). *It could happen to anyone : Why battered women stay.* Newbury Park, CA : Sage
- Bowker, L. H.(1993). *Beating wife-beating.* Lexington, Ma: Lexington book.
- Culp, L. N., & Beach, S. R. H.(1993). Marital discord, dysphoria and thoughts of divorce :Examining the moderating role of self-esteem. Paper presented to the 27th Annual Convention of the 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Behavior Therapy, Atlanta, Ga.
- Gelles, R. J.(1976). Abused wives : Why do they stay? *Journal of Marriage & family* 38, 659-668.
- Gottman, J.(1994). *Why marriages succeed or fail.* Fireside : Simon & Schuster.
- Infante, D.A., Chandler, T.A., & Rudd, J.E. (1989). Test of an argumentative skill deficiency model of interspousal violence. *Communication Monographs* 86, 163-177
- Pagelow, M. (1981). *Women battering : victims and their experiences*.Beverly Hills, CA : Sage.
- Straus, M. A.(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 II). *Journal of Family Issue* 17(3), 283-316.
- Strube, M. J. & Barbour, L. S.(1983). The decision to leave an abusive relationship : economic dependence and psychological commitment. *Journal of Marriage & family* 45, 785-793.
- Truninger, E.(1971). Marital violence : The legal solutions. *Hastings Law Review* 23, 259-276.
- Walker, L.(1979). *The battered women.* New york : Harper & Row.